

전주대, 지역 청소년 대상 '캠퍼스 진로체험' 진행

전공수업 매년 4월-6월까지 주 3회
전공실습 5월26일~7월28일까지 월 1회

전주대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주 3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퍼스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매년 전국에서 약 4,000여 명의 고교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해서 전주대를 방문하고 있다.

27일 전주대에 따르면 캠퍼스 진로체험은 청소년이 대학교 입학 전에 미리 전공수업의 일부를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꿈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 학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체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 특강, 학생부중합전형 소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교육 기여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욱 많은 학과가 참여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외산산업학과에서는 무알코올 커피 제조를 체험하고 건축학과에서는 건축 모형을 만들면서 구조 역학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전라고등학교 학생은 "일단 교실에서 나와서 체험하니 정말 즐겁고, 가고 싶었던 학과를 미리 경험해보니 목표가 더 뚜렷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캠퍼스 진로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전주대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퍼스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교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학과에서 진행되는 전공실습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학과체험'도 5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일 하루씩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에

서 운영하는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http://www.jj.ac.kr/iphak/>)에서 확인 또는 신청 가능하다. /기동취재반

무주경찰서, 체력 향상 체력검정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전 경찰관 대상으로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검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력검정은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기초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무주경찰서 경찰관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운영협의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여성청소년계는 2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회의실에서 실종업무 담당자 및 다중이용시설인 치즈테마파크 시설관리자 등 9명 참석한 가운데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코드아담'이란 실종아동 등 발생 시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서 즉각 경보발령과 출입구 봉쇄하는 등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번 운영협의회에서는 실종예방지침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홍보하고, 코드아담 이행실태와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 개선사항 의견 수렴, 경찰과의 합동 운영체계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시 교월동, 독거어르신 위한 행복 나눔의 장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 드리는 '내 생애 최고의 날' Happy-Day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교월동에 따르면 이번 3번째로 실시한 사업은 지난 25일 김제시 관내음식점에서 무자녀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을 다섯 마을에서 3명씩 추천받아 15명을 모시고 최고의 날을 선물로 드렸다.

협의체는 소박하게 한끼를 해결하시던 어르신들을 위해 떡케이크, 불고기전골, 계절과일 등을 배곡하게 준비하고, 복지팀장과 기동대원은 어르신들의 왕복 인솔을 책임져 모두가 복지과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소외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고 효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연말까지 교월동 관내 15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여 위로와 행복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아너소사이터 최정복님의 지정기탁금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광대병원-전북금연지원센터, 장애인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MOU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는 지난 24일 동군마을,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전북맹아학교와 장애인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연지원센터 박민희 분과장(원광대 간호학과 부교수)을 비롯하여 보배정신건강상담팀 송은주 센터장, 전북맹아학교 김현옥 상담부장, 동군마을 김연하 사회재활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조전라북도 내 장애인흡연자의 금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약속했다. 전북금연지원센터는 2주 1회 각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흡연자에게 ▲금연상담 ▲건강교육 ▲건강추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금연지원센터는 기존 금연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 장애인, 3000㎡미만 소규모사업장에게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성공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익산소방서, 이일여자중·고등학교 소방훈련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25일 오후 이일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이번 훈련은 정교생, 교직원, 소방공무원 등 1,2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했고 학생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 배양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점검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화재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인명대피훈련, 소방시설 사용법, 강령 및 소방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공공기관은 1년에 2회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미실시한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경찰서, '찾아가는 사전등록제 주력'

무주경찰서는 25일 무주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 20여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놓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이다. 사전등록의 방법은 보호자가 인터넷(www.safe182.go.kr) 또는 안전Dream 앱을 통해 직접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대상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을 다니고 있다면 시설의 단체 신청을 통해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